남구 보선 민주 입지자들 낯 뜨거운 공천 행보

지역민심 뒷전 지도부 구애 올인

"중앙당은 다 정리됐다. 결국 내가 공천될 것이다."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노리고 있는 모 입지자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자신 있게 한 말이다.

이미 물밑 접촉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의 조율이 끝났으며 전략공천을 통해 자신이 민주당 공천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강운태 의원의 광주시장 당선에 따라 다음달 28일 치러지는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입지자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낯 뜨거운 공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 공천이 중앙당의 전략공천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민주당 지도부 공략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부 입지자들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을 상대로 전화 공세는 물론 국회 의원회관까지 찾아와 지원을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애 행렬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당선된 최고위원, 당내 핵심 주류 인사들과 중앙당 고위 당직자들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최고위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입지자가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이 매일 같이 전화하면서 일정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남구의 민심보다는 중앙당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모습이어서 씁쓸했다"고 밝혔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모 입지자는 중앙당에 대한 공략외에도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인사들에게 식사 등 향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던 인사가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향응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과연 맡은 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남구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일부 인사들은 "구걸하면서까지 공천을 받을 수 없다"며 중앙당과 거리를 두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직 장관 출신의 모 인사는 "남구 보궐선거에 관심은 있으나 전략공천을 위해 중앙당에 구걸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모 인사도 "남구 보궐선거에 욕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도를 걷겠다"며 남구 출마 의사를 사실상 접었다.

이처럼 남구 보궐선거 공천이 중앙당의 전략공천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읽히면서 지역 민심도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한 태도를 또 다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남구 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단순한 전략공천이나 인지도 반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민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남구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기초적인 지역 실사에 나서고 다음 주 부터 7·28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u.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

'이미지 관리 … 대권행보 집중' 의지 표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당 대표 추대론'과 관련, "전당대회에 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당 대표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같이 잘라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박근혜 역할론'에 대해서도 "(전당대회에 안 나간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날 홍사덕 의원이 제기한 '박 대표 추대론'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친박계 6선 중진인 홍 의원은 전날 "당 화합을 위해서는 박 전 대표가 당을 맡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만큼, '박근혜 당 대표론'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의 외곽에서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면서 대권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섣불리 당에서 역할을 하려다가 실패할 경우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또 이 같은 판단의 기저에는 현 당청(黨靑)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숨겨져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청관계'가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 대표를 맡더라도 대표 역할을 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갈등을 빚을 것이 뻔하고, 이는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의 행보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TV·라디오 연설에서도 당 화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시대를 주도하고 젊고 활력있는 정당으로 변모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두고 청와대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젊은 세대를 지도부로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한나라 시도당위원장 새로 뽑는다

○…한나라당은 15일 전당대회에 앞서 광주·전남 등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키로 했다.

현역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당의 경우 해당 위원장들이 임기(7월30일) 이전에 사퇴하고, 오는 25일까지 개편대회를 열어 신임 위원장을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원외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충남·충북·대전·전남·전북·광주·제주 등 7개 시도당은 17일 위원장 회의를 열고 위원장 조기 사퇴 및 개편대회 개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다만 원외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시도당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편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노당 당선자 연수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이 16일 오후 2시부터 화순 도곡가족스파랜드에서 당선자 첫 공동연수를 갖고, 본격적인 민선 5기 의정활동 준비에 들어간다. '새로운 지방자치로, 날자!'를 주제로 한 이번 공동연수에는 윤민호 시 당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당선자 2명, 구의원 당선자 14명 등 모두 16명의 당선자가 참석한다.

이들은 이번 공동연수에서 민노당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의정활동의 방향 및 의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북구의회 당선자 설명회

○…광주 북구의회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6·2 지방선거 당선의원 20명과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의회측은 이날 의회사무국 직원소개, 의원소개와 당선자들에게 구정현황·의회현황 및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병역사항 신고 등 당면 현안사항 등을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구 보선 입지자 출마 선언 잇따라

7·28 광주 남구 보궐선거 민주당 입지자들이 15일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민주당 이윤정 남구지역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지병문 후보의 낙선으로 와해됐던 남구 민주당 조직을 재건하고 지역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남구를 지켜왔다"며 "지역을 위해 봉사해 온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받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지병문 전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민생을 챙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17대 국회서 '지병문표 법안'이라고 불리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했듯이 국회에 들어가면 개혁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남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6·2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무능함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호남 정치인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젊은 정치인들로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

오현섭 여수시장 김충석 당선자 고소

오현섭 여수시장이 김충석 여수시장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오현섭 시장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판쳤던 각종 악성루머와 비방 등 구시대적인 선거풍토를 묵과하면 앞으로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는 큰 요인으로 작용해 여수의 깨끗한 정치문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판단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대표적인 허위사실로 야간경관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전 간부 직원과의 연루설과 신순범 전 국회의원의 폭행 사건과의 연루설 등을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mihang@

정두언 전대 출마 선언

"이제 이명박 정치에서 나와서 정두언의 정치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53·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15일 정치적 '홀로서기'를 시도하며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재선의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패가 걸린 이번 전대에 출마, 한나라당이 세대교체와 보수혁신, 당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대 흐름에 맞는 사고를 하고, 젊은 층과도 소통이 되는 게 세대교체"라며 "또한 한나라당은 의무·절제·양보·희생·봉사·기여·책임을 실천하는 보수혁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월10~14일 사이에 개최될 전대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것은 정 의원이 처음으로, 이번 주중 당내 주요 인사들의 전대 출마 선언이 잇따르며 당권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친이계에서는 정두언 의원 외에도 4선의 안상수·홍준표, 3선의 심재철, 재선의 이군현, 초선의 이은재 의원,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3선의 서병수, 재선의 이성헌·한선교 의원, 중립그룹에서는 4선의 남경필, 3선의 권영세, 재선의 나경원 의원 등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지경기자 jkpark@